

폐업 늘고 미분양 쌓이고...건설업 '금리 공포'

상반기 건설사 폐업 속출...광주 36곳·전남 131곳
정부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업계 전반에 '초긴장'

광주·전남 건설업계가 또 다시 슬럼프에 있다.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폐업이 잇따르고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까지 제기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공사비 상승과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마저 커질 경우 지역 중소 건설사들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6월 광주 지역 건설사 폐업 신고 건수는 종합건설업 3건, 전문건설업 33건 등 총 36건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종합건설업 19건, 전문건설업 112건 등 총 131건이 폐업 신고했다. 전남의 증가세는 특히 가파르다. 전남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69건에서 올해 112건으로 62.3%

증가했고 종합건설업도 16건에서 19건으로 늘었다. 광주는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가 지난해 7건에서 올해 3건으로 감소했지만 전문건설업은 33건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폐업 건수만으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규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 역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전체 건설사 폐업 신고 건수는 광주 107건, 전남 251건에 달했다. 업계의 어려움은 미분양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4월 주택통계를 보면 광주지역 미분양 주

택은 1288호, 준공 후 미분양은 721호로 집계됐다. 전남은 미분양 주택 2390호, 준공 후 미분양 1863호를 기록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이미 공사를 마쳤음에도 분양되지 않은 물량으로 건설사의 자금 회수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위험 지표로 꼽힌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체 미분양 물량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와 금융비용은 이미 투입됐지만 분양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하반기 들어 금융 부담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와 가계부채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은 사업 특성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운영자금 대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리가 오르면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자금 조달 여건도 악화되는 식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어 금리 상승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도 여전하다. 시멘트와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민간 분양시장까지 위축되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수익 구조는 갈

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업계는 건설경기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자재·장비·운송·설비업체 등 연관 산업 비중이 높아 건설사 경영난이 협력업체와 지역 고용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금이 공사비 상승과 추수 감소로 버티기 어려운 업체들이 적지 않다"며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중소 건설사들의 경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발주 확대와 PF 정상화, 지역 건설업체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방한 임박 젠슨 황...‘삼겹살 소맥’ 회동한다

대만 일정 후 5일 한국 찾아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나
네이버 사옥 8일 방문 유력...프로야구 시구 가능성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이번 주 한국을 찾는다. 주요 그룹 총수들과 회동부터 국내 기업인들과 간담회, 프로야구 시구까지 다양한 일정이 거론되면서 반도체·IT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황 CEO는 방한 기간 서울 성수동의 한 음식점에서 삼겹살과 주류를 곁들여 국내 기업인들과 격의 없는 식사 자리를 가질 것으로 보여 또다시 화제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 CEO는 대만에서 열리는 엔비디아 연례 AI 콘퍼런스 'GTC 타이베이' 등 주요 행사 일정을 마친 뒤 오는 4일 저녁 한국에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인 5일부터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회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동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이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만남이 AI 반도체 협력은 물론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일정으로 이번에는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장소는 서울 성수동의 한 삼겹살 음식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음식점의 온라인 예약 현황을 파악한 결과 오는 5일 당일 오후 6시 이후로는 예약이 마감된 상태로 나온다. 실제 이곳에서 회동이 이뤄진다면 삼겹살에 소주와 맥주를 곁들인 이른바 '삼겹살 소맥' 회동이 될지도 관심사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지난해 10월 화제를 모았던 이른바 '간부회동'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회동 장소로 성수동의 한 삼겹살집이 거론되는 것은 작년 '간부회동'의 연장선 행보로 풀이된다. 당시 황 CEO와 이 회장, 정 회장은 삼성동 치킨집에서 만나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업계 안팎의 관심을 끌었다. 성수동은 최근 젊은 층과 글로벌 브랜

드, 첨단 IT·스타트업이 몰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꼽히는 데다, 삼겹살 집은 한국적이면서도 격의가 낮은 회동 장소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 CEO의 방한 준비에는 지난해 이어 장려진 매디슨 황 엔비디아 유니버시티 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 이사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매디슨은 지난해 '간부회동'을 기획했으며, 올해도 주요 행사 동선과 일정 조율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황 CEO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 사옥을 찾는 방한도 네이버 측과 현재 조율 중이다. 방한일은 8일 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제2의 사옥인 1784는 로보틱스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5G 특화망 등 네이버의 미래 기술이 집약된 공간으로 꼽힌다. 황 CEO의 이번 네이버 방문이 성사될 경우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과 국내 플랫폼 기업 간 협력 논의가 한층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 CEO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 홈경기 시구자로 나서고, 신라호텔에서 국내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스마트인재개발원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산대특) '엣지 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자 과정 2회차'가 수료생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하며 교육 성과를 입증했다.

스마트인재개발원, 수료생 만족도 조사 '만점'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산대특) '엣지 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자 과정 2회차'가 수료생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하며 교육 성과를 입증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교육 전반 만족도

를 비롯해 교강사, 평가 및 피드백, 실무 연계성, 과정 운영, 현장 지향성 등 주요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AI 기술과 헬스케어 산업을 접목해 데이터 분석, AI 모델 개발, 서비스 구현, 디바이스 연계까지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구

성한 점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수경 스마트인재개발원 원장은 "현장 중심 커리큘럼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수료생들의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전 청정수소 기술, 국제표준 됐다

국제표준 등록...글로벌 시장 선점 기대

한국전력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청정수소 생산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으며 글로벌 수소시장 선점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특히 생산 효율을 높이고 수소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으면서 국내 청정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발전 5사 및 민간기업과 공동 개발한 '차세대 블루수소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이 수소 분야 국제표준인 ISO 19870에 등록됐다고 1일 밝혔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탄소중립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차세대 청정수소 생산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2022년 국내 최초로 20kW급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며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이번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기술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수소기술위원회가 제정한 '수소 공급망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가운데 수소 생산 부문 표준에 반영됐다. 기존 블루수소 생산 방식은 천연가스 개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별도 포집·분리하는 공정이 필요했다. 반면 한전이 개발한 차세대 청정수소 생산기술은 해당 공정을 생략할 수 있어 공정 효율을 높이고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최초 20kW급 블루수소 생산시스템.

한전은 해당 기술이 생산 효율을 10%p 이상 향상시키고 청정수소 생산 가격도 약 30%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소 생산 비용이 청정수소 산업 확산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만큼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국제표준 등록은 29개월 동안 진행된 단계별 기술 검증과 ISO 회원국 투표를 거쳐 이뤄졌다. 기술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해외 사업 추진에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속련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 법무부 제도 개선안 시행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숙련기능인력(E-7-4) 외국인 고용을 최대 50%까지 허용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숙련기능인력은 국민 고용 인원의 30%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농축어업 분야에 '고용허용 인원 특례'를 적용해 최대 50%까지 고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고용 인원이 4인 이하인 영세 소규모 농축어업 사업장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장 휴·폐업이나 부당 처우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이직할 경우 '근속기간 산정 특례'를 신설해 이직 직장 근무기간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숙련기능인력 비자 변경이 가능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 설문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유튜브 프로모션을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유튜브·구글 AI' 결합 상품 출시

LG유플러스가 유튜브 프리미엄과 Google AI Pro를 묶은 구독 상품을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상 서비스와 생성형 AI 서비스를 하나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구글 AI 프로' 결합 상품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월 이용료는 2만9000원으로, 두 서비스를 각각 가입할 때보다 약 34% 저렴하다. Google AI Pro 구독료 수준의 가격으로 유튜브 프리미엄까지 함께 이용하는 구조다. VIP 이상 멤버십 고객은 'VIP콕' 4000원 할인 쿠폰을 적용해 월 2만5000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는 영상 시청,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유튜브 뮤직 등을 제공한다. Google AI Pro는 제미나이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로 텍스트·이미지 생성, 딥 리서치, 지메일·문서 등 구글 워크스페이스 연동 기능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영상 시청과 AI 기반 작업을 동시에 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 통신 결합이 요금 할인 중심이었다면, 이번 상품은 콘텐츠와 AI 생산성 도구를 묶어 고객 체감 혜택을 키운 것이 특징이다. 김은지 기자 eunzy@

전남진흥원, 농업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ICT·AI 기반 생산시설 운영...데이터 분석 역량 제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농업 확산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 확대에 나선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22일부터 전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서 'Gemini와 함께하는 농업 데이터 분석과 대시보드 만들기' 교육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전남도와 광양시가 지원하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농업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르고, 생성형 AI와 지역 특화 데이터를 결합한 실무형 프로젝트 수행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과정은 오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8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실시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전남지역 거주자, 전남 소재 기업 재직자, 지역 내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졸업생 등으로 전액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전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홈페이지(www.innoitsa.or.kr)를 통해 오는 17일까지 가능하며, 정원은 30명 내외로 선착순 마감될 예정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